

# ‘소방관 구하는 소방관’...신속동료구조 훈련 눈길

### 전남광주소방 광주권역 구조대원 110명 참여

### 실제 현장상황 설정...고립사고 대응역량 강화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 부가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대원 고립사고에 대비해 신속동료구조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광주 소방학교에서 ‘신속동료구조팀(RIT·Rapid Intervention Team) 대응역량 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광주권역본부 산하 각 소방관서 구조대원 110여 명이 참여했다.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원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동료로 안전하게 구조하는 전문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광주권역본부부가 기획하고 광주소방학교 전문교관들이 교육을 맡아 실천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비상 호흡법과 고립 소방관 운반법, 신속동료구조 전문장비 사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실제 재난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반복 훈련을 실시하며 구조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

신속동료구조팀(RIT)은 화재나 붕괴 등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한 소방관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 대응팀이다. 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구조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광주권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광주소방학교에서 ‘신속동료구조팀(RIT·Rapid Intervention Team) 대응역량 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김희철 119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동료로 구조하는 역량은 현장 안전의 핵심”

이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신속동료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구조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조(RIT)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 21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관과정 수료자 8명과 일반과정 수료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권역부

본부는 이번 특별훈련을 시작으로 전체 구조대원의 신속동료구조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는 최근 영암군 삼호읍 한마음회관 내 ‘더 기찬밥상 프리미엄’에서 ‘행복한끼 영암 10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 HD현대1%나눔재단, ‘행복한끼 영암 10호점’ 개소

### 매년 5000만원 지원...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기여 결식 우려 어르신에 주 3회 도시락·명절 특식 등 제공

HD현대1%나눔재단이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끼 영암 10호점’을 열고 취약계층 돌봄 지원에 나섰다.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는 최근 영암군 삼호읍 한마음회관 내 ‘더 기찬밥상 프리미엄’에서 ‘행복한끼 영암 10호점’ 개소식을 열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정동 HD현대삼호 부사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돌봄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행복한끼 사업은 끼니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영암을 비롯해 서울과 성남,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영암 10호점 운영을 위해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결식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 40여명에게 주 3회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고, 설·추석 등 명절을 포함해 연 5회 특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도 운영해 세탁 지원까지 병행하며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행복한끼 영암 10호점 개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락 제작과 운영을 맡는 ‘더 기찬밥상 프리미엄’은 영암시니어클럽과 사회적협동조합 정성그린이 운영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곡성, 청년 마을활동가 참여 발판 마련...신규 양성교육

### 지속 가능 네트워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은 최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청년 마을활동가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만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6일을 첫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 이해, 공동체 사업과 지역 의제 연계 기획, 공동체 사업 기획 실습, 디지털 및 AI 도구 활용 방법, 공동체 사업 운영 흐름 이해 및 회계·정산 핵심 정리 등 현장 맞춤형 실무 커리큘럼으로 채워졌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은 최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청년 마을활동가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청년들은 향후 다양한 공동체 현장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마을활동가 후속 모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모임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이 아이디어와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가 역량 강화와 연대를 지원해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태계를 견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해준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에 참석한 청년 마을활동가들이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

##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인건강을 위해 ‘배워주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운세 (음력 5월 22일)

48년생 남의 일에 나서지 마라  
60년생 죽을 판단을 내리지 말고 깊이 생각  
7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운이다  
84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96년생 늦지 않았다 배워 두고 보라  
51년생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 깨닫는다  
63년생 자녀로 경사가 연발할 운이다  
75년생 공익을 앞세워 실천하니 군자의 형상  
87년생 술과 밤이 생기는 좋은 시기다  
99년생 이성과의 만남을 삼가하자  
54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가져라  
66년생 욕심을 버려야 한다  
78년생 기다린 소식이 이르거나 인화가 나올 것  
90년생 이제야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때  
57년생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치지 말 것  
69년생 어려움 겪은 뒤 안정을 찾는다  
81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93년생 뒷사람과 상의하면 길이 보인다

49년생 혈압에 이상이 생기니 주의하자  
61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73년생 깔끔하게 보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85년생 중요한 일 깨질 우려가 있으니 신중  
97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하자  
52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다  
64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뒤발 없다  
76년생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면 효율성 높일 것  
88년생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말 것  
55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67년생 고집스러운 생각을 조심하자  
79년생 문제 진전이 없으니 시간적 여유 가져라  
91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뤄진다  
58년생 맹목적이던면 무의미하다  
70년생 노후를 인정받아 운이다  
82년생 문서 계약을 조심하자  
94년생 이성 문제로 오해를 받는 날

50년생 권유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자  
62년생 고집 내세우다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74년생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주권을 가져라  
86년생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길 것이다  
98년생 목표를 정해 정진할 때  
53년생 원칙 고집하다가 중요한 것 놓친다  
65년생 문서거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77년생 너무 기뻐하지 말고 신중하자  
89년생 할 수 있으나 탄력 발휘에 세심 필요  
56년생 많은 이익이 따르는 거래가 성사된다  
68년생 재물은 다시 나가기 때 되며 식중독 조심  
8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92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59년생 인연을 조심  
71년생 자녀에게 행운이 따른다  
83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95년생 이성친구와 이별수가 예상된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